

백양사 주지 “총림 해제 이해 안 돼”

중앙총회 고불총림 해제 결의에 입장 밝혀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이 조계종 중앙총회의 고불총림 해제 결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총림 해제 안건은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요지다.

토진 스님은 11월 10일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해제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중앙총무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배포했다. 토진 스님은 먼저 백양사 총림 해제 결정에 있어 중앙총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토진 스님에 따르면 백양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조계종 교육원으로 부터 인정받았다. 3평의 교수진과 학인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22일 임회 및 교구총회를 통해 율학승가대학원을 동안거 해제 후인 2020년 3월 청류암으로 이전기로 했다는 게 토진 스님 설명이다.

토진 스님은 “현재 청류암은 관음전 수리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안거

가 임박한 이유로 안거 해제 후 율학승가대학을 이전기로 한 것”이라면서 “백양사 총림 해제 안건은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11월 6일 긴급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는 백양사와 협의가 없었으며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충분히 개선 의지가 있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총무원이 요청한 시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총림 해제를 결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백양사 총림 해제 건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에 입각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의 총림 해제는 중앙총회 결의에 따라 11월 6일자로 적용됐다. 이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백양사가 다시 총림이 되기 위해선 총림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 일부 인사 단행

총무원장 원행 스님, 11월 13일 임명장 수여

감사국장 범종·사회국장 혜도

호법국장 범오·상임감찰 여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총무원을 비롯해 산하단체 국장단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감사국장 범종 스님, 문화국장 향림 스님, 사회국장 혜도 스님, 호법국장 범오 스님, 상임감찰 여여 스님, 조사과장 덕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이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종단발전을 위해 허리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란다. 마음을 한층 더 내서 종도들과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으며 부석사 봉황선원, 고운사 고급당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총무원 홍보국장, 기획국장, 문화국장, 호법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과 안동 광흥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 해방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국장 혜도 스님은 세광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수계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호법국장 범오 스님은 보선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고운사 고급당선원, 고불총림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대흥사 동국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쌍계사 주지,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기획실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진 무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여여 스님은 효종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동화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고불총림선원, 벽송사 벽송선원, 팔공총림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다.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조사과장 덕업 스님은 정념 스님을 은사로 2006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북한암선원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총무원 사서실 사서를 역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해인총림선원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제14대 중앙총회의원 및 사정암·향일암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새 시대 수행결사 막 오르다

키워드로 본 상월선원 천막결사… 11월 11일 입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63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불교 최초의 동안거 천막결사도 시작됐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종은 11월 11일 결사현장에서 안거 입제에 들었다. 천막결사는 3개월간 폐관 수행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묵언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수행하게 된다.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결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1 이만사만 ‘한편’ 결사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종은 11월 10일 입제 전날 결사 외호대중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는 결사대중으로 참여하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무연, 호산, 재현, 심우, 진각, 도림, 인산 스님 등 9명의 대종 스님들과 총도감 해일 스님, 원명, 환풍, 담화, 가섭, 탄문, 범해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출제가를 막론한 외호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만남에서 결사 직책을 맡은 수곡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이번 결사는 이판과 사판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수행정진하는 한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사에는 대표적인 사관승으로 꼽히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수좌 스님으로 현재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호산 스님 등이 함께 참여했다. 폐관 수련이지만 천막법당 내에서는 함께 객좌하며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수행정진은 산중선원과 사찰의 수행가풍을 높였지만 이번 결사서는 실질적인 사찰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향후 수행가풍을 사찰 일선에서의 포교와 전법 등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대중동참 ‘열린’ 결사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스님들만의 결사가 아닌 대중이 함께 하는 결사란 점에서 그동안 한국불교의 다른 결사와 차이점이 있다. 상월선원 천막법당 옆에는 천막결사 체험동이 준비되고 있다. 체험동은 결사대중이 정진하는 천막법당과 비슷한 조건으로 4-5명이 정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박 3일, 일주일 등 다양한 동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외호대중 총도감 해일 스님을 중심으로 모색 중이다. 현재까지 40여 명이 넘는 재가신도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며 11월 16일 첫 정진과 함께 토요일정진으로 이루어져 재가신도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에 참여하는 9명의 스님들. 3개월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1일 1식 하며 정진한다.

들의 입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월선원 천막법당 앞에는 기도실이 마련돼 있다. 스님들의 폐관 수련과 함께 재가자들의 기도정진도 함께 진행된다. 11월 14일에는 서울 봉은사 대종이 기도와 함께 봉은사에서 진행해 오던 목요음악회도 함께 기도실에서 진행했다.

3 유튜브 ‘디지털’ 결사

다른 결사와 다르게 이번 천막결사는 포교와 전법에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다. 이러한 소통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또 다른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지난날 유튜브에 ‘천막결사 상월선원’ 채널을 열었다. 입제 전부터 천막결사 준비 과정과 결사

대중 스님들의 인터뷰, 기도동참 안내, 상월선원 찾아오는 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320여 명 수준이지만 점차 수가 늘고 있다. 네이버 밴드 ‘상월선원’은 유튜브에서 전하지 못한 교계, 일반인론의 보도내용과 함께 댓글을 통한 대중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600여명의 대중들이 참여해 결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천막결사 외호대중으로 참여하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는 출가자 감소 등 위기에 처해있다. 시대 흐름과 호흡하는 한국불교 중흥의 촉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결사가 나왔다”며 “디지털 기록으로 결사의 의미를 새롭게 했다는 것과 사관 스님들도 함께 수행을 하며 승단에 수행가풍 전파이란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수행과 신행, 전법의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총림, 불자들 ‘안심입명처’ 발원

송광사 제7대 방장 현봉 스님

11월 11일 결제일 승좌법회

조계총림 송광사 제7대 방장에 추대된 현봉 스님이 총림을 불자들의 안심입명처가 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는 11월 11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교구말사 스님 200여 명과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7대 방장 남은당 현봉대선사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이정현 국회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봉 스님의 승좌를 축하했다.

승좌법회는 경내 사물인 법고와 명종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고불문, 육법공양, 헌향, 행장소개에 이어 청법가, 승좌,



송광사 방장 승좌법회에서 현봉 스님이 동안거 결제법문을 하고 있다.

법장봉정, 불자봉정, 법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전체 대종은 사시마지와 축원, 사후서원으로 승좌법회를 마무리했다.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총림의 화합과 대중 개개인의 부단한 수행을 당부했다. 스님은 “이제 우리 총림 대종은 주장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지만 새벽예불시간이 되니 밝은 달이 나타나면서 온 도량을 환하게 비춘 것처럼 불자가 시비분별 가려내고 나니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흘러간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을 위해서 진리의 주장자와 불자를 대중에게 봉정하오니 재각기 이를 의지해 수행하면서 부디 헛발발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조계총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법장(法杖)과 불자(拂子)를 유나영선 스님과 주지 진화 스님이 각각 봉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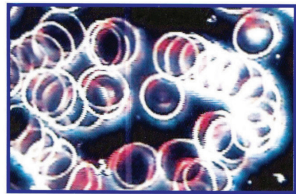
송광사는 승좌법회를 시작으로 이번 동안거 선원 대종 20명을 포함한 정진대중과 외호대중 등 총 123명의 총림 대종이 결제에 들어갔다. 방장 현봉 스님은 삼일암에 주석하며 총림 대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의 기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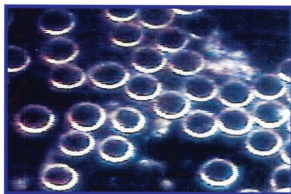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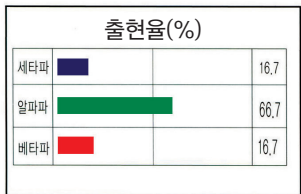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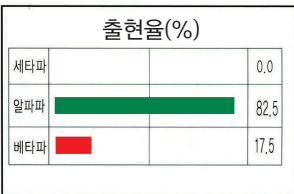
낙파 측정촬영



정상 적혈구(사용10분 이내)



사용전



사용후

탈모 예방



사용전

발모 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 강비누: 120g 개당 25,000원 ● 순비누: 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뱀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뱀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공산품인세정용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주)에이스 삼강